

# 부다피아 4

## 교계 단체·정보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유일의 불교정보 서버보유

작년 10월부터 자체 기술력으로 사실전자게시판을 개편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본사의 부다피아는 국내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서버를 가지게 됨으로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구축되는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올해 초 속도 56K(초당 영문자 56만자)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의 인터넷 전용 회선을 개설하고 인터넷 제반 시스템에 개발 착수하여 마련하게 된 자체 서버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파일전송·원거리 접속 서비스·전자우편·뉴스그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

는 불교계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꾸준한 투자와 기술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본사의 노력에 대한 산물로 평가받는 한편 국내 불교계의 제단체와 각종

### 다양한 정보·빠른 속도 장점 해외사이트 통로역할 '특목'

단, 개인들과 연결하는 불교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계 전반을 묶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멀티미디어 형태의 불교 전문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

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으로 미래 불교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일이 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개인 및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주제별로 깊이있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그밖에 자체서버 보유는 모델을 통한 일반사용자가 전화선으로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할 수 있고, 향후 초고속 통신망과의 연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내 불교계의 열악한 전산화 환경에 타단체들의 전산화 동기를 불러 일으키고 동시에 이용자들의 불교정보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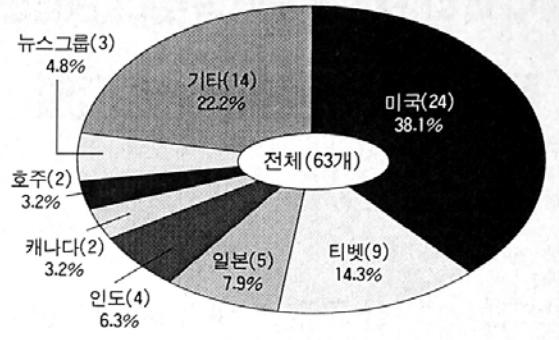
국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자체 서버로 제공하는 부다피아 서비스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다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남수미 기자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가장 활발한 불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전체 인터넷 불교 사이트 63개에서 미국이 24개의 사이트를 제공, 단연 앞장서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불교관련 사이트도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 개인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네트워크, 불교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불교관련만 2만여개.

가상공간 속에서의 불교정보 교류가 한창인 가운데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에서는 해외의 불교정보



〈도표 1〉 인터넷 불교사이트 국가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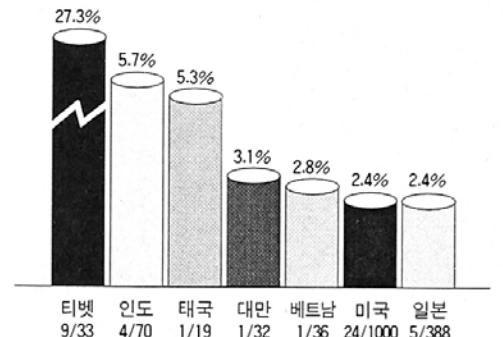
## 총 63개 중 美서 24개 제공

### 인터넷 해외 불교사이트 현황

티베트 9개·일본 5개 등 최근 관심 고조 개인홈페이지는 전세계 2만여개 '성시'

제공자 현황을 조사했다. 미국의 정보검색업체로 유명한 마젤란을 통해 '불교'(buddhism)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총 불교관련 사이트는 63개(개인 홈페이지 제외)에 이른다. 그 중에서 미국이 24개로 수적으로도 우세하며 제공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불교교리 선불교 명상 토론그룹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티베트이다.

특히 티베트의 경우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보존하고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가상공간속에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에



〈도표 2〉 국가별 인터넷 불교사이트 보유비율

서는 일본의 활동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5개의 사이트를 제공하는 일본의 경우 정토종 일련종 등 종파별 그룹을 묶는 네트워크 활동이 두드러진다. 〈도표1 참조〉

각국에서 제공하는 총 사이트 중에서 불교관련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눈여겨 볼 만 하다.

### 해외이용자 축하 메시지

Fred Wolff (Nichiren buddhism, Kempon Hokke 회원)

부다피아 사이트의 개통을 축하합니다. 또한, 니치렌 부디즘 홈페이지에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등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교류 관계를 유지해 나갑시다.  
http://www.asb.com/usr/fswolff/nichiren.htm  
E-mail 주소: fswolff@unix.asb.com

Mike Mastaler(LinkStar Communication 기술 자문)

먼저,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개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방문을 하여보니 정말 훌륭한 정보센터입니다. 인터넷 정보 교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http://www.linkstar.com  
E-mail 주소: mike@linkstar.com

Drury 대학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통해 한국 불교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받은 한국 불교 정보는 한국 불교관련 세미나 발표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 스님들의 철학과 생활상에 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mail 주소: student@lib.drury.edu

R&D 정보 센터

저희 R&D 정보센터를 부다피아 정보센터에서 연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저희 회사는 외국 산업과 마케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ttp://www.kind.co.kr  
E-mail 주소: jilee@kind.co.kr

Charles Muller(일본 토요가쿠엔대 동양사상학과 조교수)

한국내에 한국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정보센터가 생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한국 불교 관련 논문에 관한 평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보내주시는 정보를 고려하여 개정된 논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코멘트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ttp://www2.gol.com/users/acmuller/  
E-mail 주소: acmuller@gol.com

## '불교학 가상도서관' '달마넷' 인지도 높아

### 이용자 많은 해외 불교사이트

PC컴퓨팅사가 접속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사이트의 검색현황을 통계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교관련 사이트 중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 불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불교학 가상 도서관(ANU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 '불교 실천 윤리 학지(Journal of Buddhist Ethics)' '달마 넷(Dharma Net International)' '신부디즘 네트워크(Shin Buddhism Network)' '트리사이클(Tricycle)' 등을 뽑고 있다.

포인트 조사기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 5%에 선별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불교학 가상 도서관'에서는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 불교 사이트를 주제별로 연계할 수 있어 인터넷 초보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불교학 일반 이외에도 티베트불교와 선불교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제공되고 있다.

불교와 윤리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정기적인 전자잡지로 인정받는 '불교 실천 윤리 학지'에서는 석학들의 소고와 논문 등을 접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전자출판되는 윤리에 관한 자료들과 세계 여러 석학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 해외사이트의 연계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오는 10월에는 '서구 불교계'에서의 윤리'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참가자들의 논문 등을 모집하고

- 불교학... 주제별 연계 초보자 접속용이
- 불교실천... 세계석학 소고·논문 다수 수록
- 달마넷... 사설 전자게시판 연결망 갖춰
- 트리사이클... 편집진들과 쌍방향 교신가능

있다. 불교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비영리 불교단체들도 있다. '달마 넷'의 경우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달마넷 파일 아키(DEFBA)라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세계 곳곳의 사실전자게시판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격월로 전자출판되는 가소(Gassho)가 가상공간 속에서 불교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달마 넷의 소식지로 발간된다.

계간으로 독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것 이외에 인터넷에 허브를 개설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트리사이클에서 이용자들은 온라인 질문에 응답하기도 하고 트리사이클의 편집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쌍방향 교신이 이루어진다.

- 〈해외 불교사이트 찾아가는 주소〉
- 불교학 가상 도서관  
▲http://coombs.anu.edu.au/ 불교 실천 윤리 학지
  - ▲http://www.psu.edu/jbe/ 달마 넷
  - ▲http://sunsite.unc.edu/ghama/ 신부디즘 네트워크
  - ▲http://www.mew.com/shin/ 트리사이클
  - ▲http://www.well.com/user/tricycle/

불교관련 사이트 9개를 제공하는 티베트의 경우, 국가 전체 사이트가 33개임을 고려하면 불교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7.3%로 상당히 높은 불교 관심도를 나타낸다. 인도의 경우에도 응답하기도 하고 트리사이클의 편집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쌍방향 교신이 이루어진다. 〈도표2 참조〉

한편 마젤란을 통한 불교사이트 검색정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불교관련 사이트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번에 부다피아가 독립적 자체 서버를 구축, 해외 불교사이트 대열에 들게 되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통로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복음 가득, 반향 가득 ...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세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문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도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자랑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신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찾아오시려면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737-0695, 팩스: 737-0696